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마을에 반란군이 진주하고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운동장으로 불러 모은다. 반란군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협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동안 비밀리에 반체제적 활동을 해 온 소금 장수, 푸줏간집 곰보, 대장장이는 갑자기 활개 치며 마을 사람들을 반란군에 협력한 사람들과 적대적이었던 사람들로 분류하기 시작한다. 목사를 비롯한 반란군에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은 곧 처형당할 위기에 놓인다.

-오전 11시 40분

드디어 이날의 예정된 **행사**는 거의 끝이 났다. 새끼줄의 왼쪽과 오른쪽은 ■□■과 같은 꼴로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어 있었다.

“모두 끝났습니다.”

병사 하나가 그렇게 **보고**를 했다. 매부리코 장교는 마침 한 손에 물컵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 보고를 받더니 “그래? 이제 다 마쳤구먼. 아아, 모두가 끝난 셈이란 말이지.”하고 대답한 뒤 훌쩍 컵을 마셔 버렸다.

교문 근처의 노인들과 아이들은 운동장 양편으로 분리된 두 패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을 명확하게 두 동강으로 갈라놓은 가늘고 긴 새끼줄을 먼발치에서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을 이 작은 마을에서 아침저녁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지 극히 순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을 지금 이 순간 두 개의 전혀 판이한 운명으로 나뉘 놓은 것이 고작 그 가느다랗고 불품없는 새끼줄 몇 가닥이라는 사실은 얼핏 믿기지가 않았다. 그 두 집단을 분단시켜 놓은 새끼줄과 새끼줄 사이의 공간이라고 해야 겨우 스무 발짝도 채 못 되는 거리였지만 이 순간은 그것은 바다보다도 더 까마득하게 멀고 먼 거리로 여겨졌다.

(중략)

- 1950년 7월 28일 낮 12시

마침내 정오였다.

단상 위에 우뚝 서 있던 매부리코 장교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불현 듯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번쩍 펼쳐 올리는 것이었다. 목사의 눈에 그것은 악마의 신탁(神託)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무엇인가 하늘을 향해 외치려 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이날 행사의 클라이맥스를 알리는 운명의 신호였음을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까맣게 몰랐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매부리코 장교가 팔을 내리자마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무장한 병사들이 가득 타고 있는 트럭 세 대가 들어온다.

“이, 이럴 수가…….”

지켜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눈앞이 일제히 뒤집히는 것만 같았다.

아군이였다. 눈에 익은 청색 깃발을 펴리며 들어오고 있는 그들은 분명 바로 어제저녁까지 읍사무소에 주둔해 있던 그 아군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트럭에서 내린 그들은 저벅저벅 군화 소리를 내며 마을 사람들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있는 그 중앙의 공간을 가로질러 유유히 행진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배불뚝이 아군 부대장과 매부리코 적군 장교가 자신들의 바로 눈앞에서 만나 힘차게 **악수**를 나누고 있는 광경을 사람들은 똑똑히 지켜 보았다.

“아니야아. 거짓말이야. 모조리 속임수란 말이야앗!”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 창고 건물의 모퉁이를 돌아 나오며 고함을 치고 있는게 보였다. 온몸이 땀뻘 땀이 흘려 나오고 있는 그 사내가 바로 이날 내내 종적이 묘연하던 그 약방집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달았다.

“아이쿠 속았구나!”

소금 장수와 푸줏간집 곰보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고, 대장장이는 서 있는 채로 바지에다 쭈뼛 오줌을 누고 말았다.

“허허허허, 자아, 이제야 모두 끝났나 봅시다. 허허, 본의 아니게도 죄 없는 여러분들이 십년감수하셨겠소이다. 우리 몇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뻔히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었지요. 우리인들 달리 어찌겠습니까. 허허허. 이렇게 해야만 숨어 있는 불순분자들을 하나 남김없이 깡그리, 그것도 제 발로 스스로 걸어 나오게 만들 수가 있다고들 하니 말입니다. 허허허, 그래서 우리 관리들 몇은 어젯밤부터 모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각본대로 연극을 좀 해 봤지 뭐니까. 저분들은 사실 K시(市)의 아군 부대 병사들이랍니다. 반란군 제복으로 갈아입고 감쪽같이 그럴듯하게 적군 행세를 한 거지요. 읍사무소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는 이웃 마을에 잠시 철수해 있다가, 오늘 낮 12시 정각에 나타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는군요. 허허허,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힘 하나 안 들이고 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허허, 벌써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써 보았더니 그 효과가 아주 좋았다지 뭐니까, 으허허허.”

그때까지 고개를 떨어뜨린 채 꿇어앉아 있던 읍장은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껍이나 재미있는 놀이였다는 양 그렇게 설명을 해 주고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는 거였다.

-임철우, 「극두 운동회」-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로 다른 처지를 지닌 인물들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며 인물들 간의 오해가 해소된다.
- ②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감정이 드러나고,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들의 처지가 달라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③ 누군가의 음모에서 비롯된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결국 조력자의 도움으로 갈등이 해소된다.
- ④ 서로 다른 입장에 서있는 인물들의 행적이 드러나고, 이러한 행적의 비교를 통하여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⑤ 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이를 통하여 그 전말을 알게 된 인물은 타인을 이해하게 된다.

2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부리코 장교는 아군 병사들과 같이 음모를 꾸몄다.
- ② 반란군은 마을 사람들을 학교 운동장에 집합시키고, 새끼줄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 ③ 이웃 마을에 주둔하던 아군은 운동장에 행진하기 전에 읍사 무소에 잠시 철수해 있다가 운동장으로 행진하였다.
- ④ 음모가 드러난 이후 읍장이 말한 죄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좌절감으로 인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다.
- ⑤ 마을 사람들이 겪게 된 일들은 모두 매부리코 장교와 읍장이 마을 사람들 속 불순분자들을 찾고자 꾸민 음모였다.

30. 행사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병사가 매부리코 장교에게 모두 끝났다고 하는 ‘보고’는 줄 세우기를 통해 행사 진행의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드러낸다.
- ② ‘새끼줄’은 행사에서 나눠진 두 집단의 친목을 위해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다.
- ③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운동장에 등장한 ‘아군’은 운동장에 미리 도착한 ‘반란군’과 대립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행사 진행에 있어 차질을 빚게 됨을 드러낸다.
- ④ ‘악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반된 반응을 일으키며, 이를 통하여 마을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읍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행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드러난 ‘웃음’은 마을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대상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곡두 운동회」는 전쟁의 폭력과 이념적 갈등 속에서 국가 안보라는 미명을 내세워 부조리한 일을 벌인 권력자를 비판하고, 권력자의 위장극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한 혼란과 고통, 민족 분단의 참극을 드러낸다.

- ① 권력자가 평화롭게 지내던 마을 사람들을 새끼줄을 기준으로 나누었다는 데서 민족 분단의 참극이 드러나는군.
- ② 두 집단을 분단시킨 새끼줄 간의 공간이 얼마 안 되지만 바다보다도 더 까마득하게 느껴졌던 데서 마을 사람들의 심리적 거리감과 그들이 겪은 혼란과 고통이 드러나는군.
- ③ 아군 부대 병사들로 변장한 반란군의 정체가 드러난 이후 소금상수와 푸줏간집 곰보의 반응에서 자신들은 살아남았다는 데에 대한 안도감이 드러나는군.
- ④ 목사는 매부리코 장교가 팔을 들어올리는 행동을 악마의 신탁을 받은 것처럼 묘사했다는 데서 자신이 처형당할지 모르는 목사의 불안함이 드러나는군.
- ⑤ 읍장이 힘 하나 안 들이고 불순분자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데에서 마을 주민들의 공포에 대해서 무관심한 권력자의 부조리한 만행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는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一生)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닭고  
 티 없이 맑은 영원(永遠)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을  
 알리라

아침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릴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久遠)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憐憫)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